

## 2024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혈 수기)

### 제목

### 우리가족은 4명이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날 들이 있듯이, 22년의 10월 28일이 우리가족에겐 그러한 날이다. 퇴근을 30분 여 앞둔 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기에 스팸전화가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들려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

남편의 직장동료에게 걸려온 전화였고, 남편이 일을 하다 다쳐서 구급차로 경남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니 급히 그리로 오라는 전화였다.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보호자인 나의 동의를 받으며, CT 검사를 위한 조형제 투여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가 듣고 있는 이 말들이 다 무엇이며, 우리 남편이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동의를 써야하는지 아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각 종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처치실에서 응급실로 남편은 옮겨졌고 .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남편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넓고 듬직해보였던 가슴에는 남편이 부딪힌 것으로 추측되는 기계의 원형 모양이 그대로 찍혀있고, 부어 오르다 못해 솟아있는 지경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응급의학과 교수님의 면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청하려 애썼으나 내 손과 다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일을 하다가 기계에 흉부를 압착당하는 사고를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외상에 의해 간이 순두부처럼 으스러져있으며, 흉부 안쪽에서 출혈이 엄청나다는 말씀 하셨다. 그리고 연이은 교수님의 조심스러운 한마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교수님께 열 번이고 천번이고 따져묻고 있었다. ‘제 남편은 이제 36살인데요?’, ‘제 남편은 평소 술이나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아요.’ ‘집에는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는 4,6살 남매가 있으니 제발 애들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현실적으로 교수님께 여쭙었다. “간이 문제이면, 간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쭙자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간 손상도 문제이긴 하나, 현재로써는 복강 내에서 엄청난 속도로 출혈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과다출혈이요. 현재 수혈을 받고 있지만 수혈 받는 속도보다 출혈이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보고 듣던 과다출혈과 간이식 이야기가 오고가며 짧지만 나에게는 결코 짧지 않았던 면담이 끝나고 남편 곁으로 돌아갔다.

그제서야 보이는 남편의 베드에는 5팩의 수혈팩들이 달려있었고, 간호사선생님들은 추가분을 더 준비하고 계셨다. 과다출혈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색전술로 출혈되는 부위를 막는 시술을 하고 진주경상대학교 병원에서의 1차 고비와 일주일 여 간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어진 간담체외과 교수님의 면담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간이식 수술을 고려해보자는 결정에 따라 우리는 장기이식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양부대)에서도 남편의 상태가 위낙에 위중하고 예후가 좋지 않아, 가족간의 일부 간을 받는 생체이식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전 간을 받아야 하는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나야 수술이 가능하여 KONOS에 대기자 등록을 해두었다. 사실상 천운이 따라야 받을 수 있다던, 인터넷 기사에서만 보던 뇌사자 장기이식...너무나 현실감 없이 느껴졌던 터라 감히 열른 받게 해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나날들이 흘렀다. 3일...시간으로 환산하면 72시간 남짓..정말 감사하게, 기적처럼도 받게 된 금요일 초저녁의 전화 한 통. 뇌사자가 나타나 이식수술을 가능하니 뇌파검사 등 추가 검사들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나라 간 이식 수술을 하자는 전화였다. 전화를 끊고 아이들 모르게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우리에게는 기쁘지만 기증자분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그 마음조차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수술 잘받아 기증자분의 몫까지 잘 살자는 다짐을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술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10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대장정의 수술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셨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게 ‘지정헌혈자’ 였다. 2022년 당시에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4~5만명에 육박하는 이른바 ‘코로나 시국’ 이라 수혈팩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에서도 수혈팩 준비를 하겠지만, 수술 중에도 과다출혈이 예상되는 바 우리쪽에서도 가족, 지인에게 남편과 동일 혈액형인 'B'형 지정헌혈자들을 3명 가량 수배해두라고 하셨다. 예상보기 지정헌혈자들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고, 남편의 회사 팀장님과 수시로 남편의 상태에 연락을 하던 찰나, 혹여나 조심스럽게 지정헌혈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다. 그간 SNS 활동을 하면서 심심치않게,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지정헌혈자들을 구하는 글들. 그 글들이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그 글을 올렸던 분들도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올려보아야 하나..고민을 했었다. 역시 우리나라는 IT강국인가!! 회사 팀장님께서 사내 커뮤니티에 남편의 수술필요여부와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글을 올렸더니 감사하게도,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4명의 분들이 지정헌혈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주셨다. 그리고 혈액형이 맞지않아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직장동료분께서는 그 날 저녁에 집 앞에 찾아오셔서 남편의 직장 동료분들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헌혈증을 한 뭉치를 주고 가셨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변화가를 놀러가면 기념품으로 주던 문화상품권과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 또 학교로 헌혈버스가 들어오던 날이면 정당하게 수업을 하지 않기 위해 헌혈을 했던 경험이었다. 이러한 단순한 이유로 해봤었던 헌혈들이, 이렇게 무게감있고 큰 일 이었다니! 2022년 11월 14일 수술 당일, 아침에 수술 전 상황과 예상시간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다행히도 수혈팩 수급을 의료진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넉넉하게 준비되었고, 그렇게 병원이라고는 모르던 남편은 중앙수술실에서 12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부이식 수술이나 피판 재건 수술 등 크고 작은 시술과 수술을 여러차례나 견뎌 준 남편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그 수술을 다 버텨내며 받

을 수 있었던 데에는 진주 경상대병원에서의 받았던 수혈, 그리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받았던 수혈, 모두 수혈이 큰 몫을 해주었다. 2022년 사고 당시 6살 이었던 첫째가 2024년 8살이 되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학생기초조사서’ 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었다. 부/모/형제자매 칸으로 이루어진 가족사항에 첫째 아빠의 이름을 쓰고, 연락처를 쓰면서 또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모른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빠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저희 가족은 4명이예요.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숭고한 희생을 해주신 뇌사자 분, 그 동안 여러 이유로 헌혈을 해주셨던 헌혈자분들, 헌혈증을 모아 주신 회사직장동료분들, 남편을 최선을 다해 수술해주시고 진료 봐주셨던 진주경상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그리고 현재의 부산봉생힐링재활병원 의료진 분들 감사합니다. 받은 관심과 사랑만큼 베풀면서 사는 가족이 되리라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